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39. 금 대접의 향연

2013. 09. 29.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8장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예언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금 대접에 담긴 향연인 기도에 대한 계시와 시간이 허락하면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8:2~7]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우고자 함이라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하늘이 반시동안쯤 고요하다는 계시를 참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금향로에 담긴 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이야기 하시지요.

답: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선 2절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담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일곱 천사가 누군가 하는데 학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시위한 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헬라어는 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준비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 천사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일곱 천사라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천사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천사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위경에 있는 일곱 천사장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구약 외경 토빗서 12:15에 우리엘이 있고, 위경 예녹서 20:2~8에 라파엘, 라구엘, 마카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렇게 일곱 천사가 아니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곱 천사장으로 소개된 천사들이 본문에 나타난 일곱 천사와 동일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이름의 일곱 천사들에 대하여 신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성경에는 천사장이라고 불린 천사는 오직 미가엘 뿐이라는 것을 볼 때에 일곱 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을 신청할 것이 없지요. 그 일곱 천사는 계시록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곱 나팔을 불기 위하여 선발된 천사들일 뿐이지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금향로 이야기가 끝나면 차례대로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을 부는데 따라서 이 세상에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을 계적 형상으로 보여줍니다.

2. 그 나팔을 부는 것보다 먼저 금향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답: 예, 문제를 가르쳐주니까 좋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한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이 항상 먼저 도움과 승리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이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성경의 기록 pattern인 것 같습니다.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15절도 같은 형식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먼저 있는 사건입니다. 만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먼저 상하게 했다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없지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문장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보증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승리의 보증을 하신 후에 당면할 환난이나 어려움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뱀의 공격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런 일이 언제나 있지만 승리는 이미 보증되어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일곱 교회도 예수께서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광경을 먼저 보여주셨고, 일곱 인도 예수께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승리자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형식이지요. 일곱 나팔로 상징된 사건들이 하나님의 참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되겠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승리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장면이지요.

3. 예, 들어보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맞네요. 잘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상태라서 한 번 더 말씀하시니 참 좋습니다. 아마 애청자들께서도 한 번 더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증하는 장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답: 그렇지요. 이런 상징은 옛날 성소 봉사에서 이미 가르쳐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하실 때에 성소의 첫째 칸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앞에 분향단을 만들어 놓게 하시고 항상 향을 살라서 향연이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 사실에 의하여 여기에 기도를 향연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시편에도 기도를 향을 올리는 것으로 표상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시141:2) 이것이 다 성소에서 향을 사르는 것에서 깨달은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간다고 했는데, 계5:8에는 향 자체를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향연이 다른 것처럼 표현되었지요.

4. 정말 그렇군요. 늘 향연은 기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향연이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향연과 기도가 따로 표현되었군요. 왜 그렇습니까? 5장에는 향과 기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답: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이 말씀은 기도를 이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향연으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다르다고 보면 기도는 기록한 대로 성도들

이 기도이고 향연은 성령과 예수님의 중보 하는 기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향로에 향연을 받아가지고 가는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천사를 표상한다고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자체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은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성소봉사하시는 중보사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14:13,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없이 기도할 때 그것은 금향로에 담기는 기도가 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태반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다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약4:2,3]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했지요. 성경말씀을 봅시다.

[롬8:26~28]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사실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의 간구가 없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한 금향로의 향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와 합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롬8:33,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성령과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에 우리들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한 기도가 혹시 마땅히 빌 것을 올바르게 빌지 못했을 때에라도 성령과 예수님의 기도로 그것이 수정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 영생의 생명을 얻는데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드러지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응답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보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가 하는 의심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5. 그런데 향로에 기도를 받아 가는 천사는 누구이지요?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와는 다른 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지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석가들은 아마도 예수님이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성경에 예수님도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니까요. 사자라는 말이 말라기 인데 천사라고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하니까 예수께서 친히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릴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그냥 봉사하는 천사일 수도 있지요. 정확하게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사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누구이든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입니다.

6.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답: 글썄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문제는 제가 모르는 문제이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따르려고 하면 성경이 계시한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언제나 예수 공로 받들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성경적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요. 나는 성경의 종교와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느냐 하는 질문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지요. 물론 성경과 신앙에 관한 것들은 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찾아야 하겠지만요.

[시116:4]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성경은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네요.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친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아무런 혼동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과학입니다. 이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공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 기도에도 공식이 있습니까? 어떤 공식인데요?

답: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는 길을 따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길이 바로 기도의 공식이지요. 성경을 봅시다.

[마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주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6:9)라고 시작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읽어본 말씀이지요. 요14:13,14은 예수님의 하늘성소에서 행하시는 중보사역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 곁에 계셔서 중보하시는 분이 보혜사이시지요. 이중으로 기도 중보가 됩니다.

[엡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공식이 나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관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공식입니다.

8.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기도가 공식을 갖춘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라는 방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답: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어려워지는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신 내용인데, 한 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16:13~15]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지요.(벧후1:21)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친히 영감하시고 계시하시고 기록하게 한 말씀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들은 것으로 가르친다고 하셨지요. 한마디로 성경 기록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기록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9. 알 것 같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만 설명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것 같이 느껴집니다.

답: 그렇습니까? 어려워지는군요. 다른 성경구절을 찾아봅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성령께서는 기록한 성경말씀 안에서 일하신다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말씀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는 공식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성령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치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말씀 안에서 성경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요일5:14,15]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오직 성경말씀으로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계시를 봤다거나 꿈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리이러한 지시를 하셨다거나 하는 것이 성경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말씀과 일치하는 사상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찾아보았습시다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잘못 구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지요.(롬8:26,27)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의 영감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의 사상과 일치하는 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향로의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이 정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과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에 의하여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의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고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공식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바른 기도 생활을 하게 하여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합당할 때 응답하신다는 보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